

‘제국’으로 가는 길*

- 나쓰메 소세키의 유럽과 아시아 여행

윤 상 인
(서울대학교)

지리를 둘러싼 투쟁이 복잡하면서도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군대나 대포만이 아니라 사상과 형식과 이미지와 이미지창조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 에드워드 E.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

I . ‘탈아’의 관성

평론가 요시모토 다카아키의 『나쓰메 소세키의 거대한 여행』(2004)은 다음과 같은 글과 함께 시작된다.

나쓰메의 거대한 여행은 두 번이었다. 하나는 문부성 제1회국비유학생으로 1900년 9월 8일 독일 기선 프로이센호로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1903년 1월 14일 도쿄에 도착한 런던 유학 여행이다.

또 하나는 만철 총재에 취임한 학창시절의 악동(惡童) 패거리였던 친구 나카무라 제코의 초청에 응해 1909년 9월 2일 도쿄를 출발하여, 10월 13일 귀국 길에 오를 때까지의 만주, 조선반도를 경유하여 주유한 여행이다.¹⁾

* 이 논문은 2013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지원을 받았음.

1) 吉本隆明『漱石の巨大な旅』(日本放送出版協會, 2004), 6쪽.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두 번에 걸친 해외여행을 다룬 요시모토 다카아키의 이 책은 그 주제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전체를 통독한 독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 책은 나쓰메의 여행기록을 주마간산 격으로 펼쳐 보인 실망스런 저작이다. 기술 내용이 종잡을 수 없이 산만한데다, 주제의식은 종종 실종되기 일쑤이며, 특히 만주, 조선여행에 관한 기술은 시종 지리멸렬한 양상을 보인다. 새로운 견해나 자료의 제시도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나쓰메의 만주, 한국 여행기록이 대일본제국의 본격적인 대외팽창이라는 정치적 움직임의 맥락에서 생산되었고, 따라서 그러한 맥락(예컨대, 제국주의 시대 일본 지식인의 아시아인식)에서 읽혀지고 논의되어온 것은 기지의 사실이거니와, 이러한 핵심적 인식지평조차 저자의 정치적 무의식 속에 완전하게 매몰된다. 결국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읽고 나서도 나쓰메의 만주, 한국 여행'이 왜 '거대한 여행'인지에 대한 답은 끝내 찾을 수가 없다.

이 논문의 서두를 개별 저작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 것은 별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다. 요령부득에 용두사미 식의 전개를 보이는 요시모토의 저작이야말로, 실은 나쓰메의 중국, 한국 여행기에 내재하는 모호하면서도 양가적인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반어법적인 역설을 환기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했을 따름이다.

나쓰메의 유럽, 아시아 여행을 둘러싼 연구는 전자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경향은 일본인 나쓰메 연구자들에게서 두드러진다. 나쓰메의 영국유학 체험 및 도영일기를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는 단행본만 해도 이미 십 수권에 이른다²⁾. 반면에 만주, 한국 여행을 다룬 연구서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발표된 논문 편수 역시 매우 한정되어 있다. 당연히 이러한 사태는 부자연스럽기 그지없다. 두 번의 여행 중,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늘 후자였기 때문에

2)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角野 喜六『漱石のロンドン』(荒竹出版, 1982), 出口保夫『ロンドンの夏目漱石』(河出書房新社, 1982), 塚本利明『漱石と英国一留学体験と創作との間』(彩流社, 1987), 出口保夫『アンドリュウ・ワット』(中央公論社, 1995), 清水一嘉『自転車に乗る漱石百年前のロンドン』(朝日選書, 2001), 武田勝彦『漱石倫敦の宿』(近代文芸社, 2002), 稲垣瑞穂『夏目漱石ロンドン紀行』(清文堂出版, 2004), 出口保夫『漱石と不愉快なロンドン』(柏書房, 2006)

더욱 그러하다. 나쓰메 전기연구의 획을 그었다고 평가 받는 에토 준의 『나쓰메 소세키와 그의 시대』(전5권)에서 만주, 한국 여행은 불과 16쪽 분량의 「16 총재의 손님」에서 소략하게 다뤄졌을 뿐이고, 그나마 한국 여행에 관한 기술을 전무하다.³⁾

그렇다면 왜 나쓰메의 만주, 한국 여행은 일본인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나쓰메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해명함에 있어, 만주, 한국여행은 유럽여행에 비해 그 비중과 의미가 소소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둘째는 여행 후에 발표한 글 속의 일부 표현 등이 이른바 ‘나쓰메 신화’에 그들을 드리울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애써 외면했을 가능성이다(이 추정은 만주, 한국여행에 대한 연구 현황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성을 확보한다. 이 연구 영역에 관한 한, 일본인 연구자들보다 중국, 한국인 연구자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둘 중 어느 경우가 되었든 비판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현황에서 드러나는 외면과 분리의 자세는 근대일본의 정신사를 관류하는 ‘탈아’의 한 증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전후의 일본인들은 서양문화의 압박으로부터, 그리 세속적 권력으로부터 비켜나 ‘독립적인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구현한 나쓰메를 정신적인 귀감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일본인 연구자들이 나쓰메를 전전 일본의 팽창노선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신성성’을 보전하려는 자세는 적어도 ‘전후 민주국가 일본’의 공동체적 합의의 토대에서 서 있는 것이며, 그 자체로 수미일관하다. 그러나 일견 온당해 보이는 이러한 기획들은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일까?

애써 ‘양심적’이거나 ‘진보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다수의 일본인연구자들은 19세기 말 이후 일본이 한국, 중국 등 근린아시아에서 전개한 제국주의적 영위에 관련된 기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최소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필연적으로 소환하기 마련인 것은 은폐나 외면, 급기야는 의도적 오독의 유혹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논문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나쓰메 소세키의 만주, 한국여행에 관한 논

3) 江藤淳『漱石とその時代第4部』新潮社, 1996

란은 여행기 등에 나타난 표현(예를 들면, 중국인, 러시아인에 대한 멸칭이나 조선인을 비하하는 언사 등)을 대상으로 삼아 당사자의 자기/타자인식을 둘러싼 비판과 옹호가 반복되었거니와, 이 논문에서는 표현 그 자체보다는 여행주체 나쓰메의 여행의 행위 내용과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나쓰메의 여행이 제국에 대한 욕망에 부역한 정치적 실천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로는, 이를 통해 나쓰메의 만주, 한국여행에 관한 대다수 일본인연구자들의 옹호 논리의 허구성을 노출시키고자 한다.

II. ‘표현’에서 ‘행위’로

45일간의 만주, 한국 여행(1909.9.2-10.17)에서 돌아온 나쓰메는 곧바로 아사히신문(1909.10.21-12.30)에 여행기『만한 여기저기滿韓ところどころ』를 연재했다. 그런데 이 여행기에는 중국인이나 한국인에 대한 비하로 여겨질 수 있는 표현이 군데군데 나오거니와, 전후인 1960년대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대두했다. 예컨대, 진보적 성향의 일본인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표현은 일본의 근린 아시아 지배에 대한 ‘둔감함과 무지’(하류 이치로針生一郎)에서 비롯된 것, ‘일본 내셔널리즘의 제국주의로의 이행’(히야마 히사오檜山久雄)이라는 시대풍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⁴⁾ 다수의 한국인, 중국인 연구자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⁵⁾.

그러나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나쓰메의 아시아인식에 대한 비판이 일본 학계 주류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소수의 일본인 나쓰메 연구자들은 소극적 반론으로 대응해왔다고 할 수 있다. 대응의 방식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태도는 ‘분리’이다. 다시 말해서 나쓰메의 일련의 아시아 언설을 정치적 문맥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제국주의에 연루되지 않은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표상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4) 尹相仁「滿韓旅行」, 三好行雄編『夏目漱石事典』, 学燈社, 1990

5) 朴春日『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朝鮮像』(未来社, 1985)를 비롯하여, 최명숙, 박유하, 范淑文, 呂元明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분리’의 양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문제의 언설을 외면함으로써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텍스트의 비정치적 독해를 통해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전형은 『만한 여기저기』의 성격 여행기가 아닌 '한가로운 교우록'으로 규정하는 사례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나쓰메 소세키의 전집 편찬을 주도한 제자 고미야 도요타카는 『만한 여기저기』에 대한 해설에서 ‘만주에서 옛 친구들을 만난 이야기로 시종일관한 기행문’⁶⁾이라고 적었거니와, 이는 이 여행기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평가였다. 이러한 입장은 ‘이 만한여행은 대륙 각지에 흩어져있는 옛 친구들과의 동창회 같은 것’⁷⁾이라는 요시모토 다카야키의 언설 속에서 계승된다. 후자는 적극적인 텍스트 독해를 통해 작가를 ‘정치’로부터 차단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나쓰메가 관찰하고 묘사한 것은 개인(인간), 생활, 풍물, 풍경이었으며, 민족, 식민지, 군국주의와 같은 정치적 요소는 그의 시야와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다.⁸⁾

이와 같이, 『만한 여기저기』에 대해서는 대륙에 나가있는 구우(舊友)들과의 '한가로운 교우록'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요컨대, 그다지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이 만유록 풍의 여행기를 나쓰메의 소설작품과 똑같은 저울에 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의 은폐로 이어지는 함정이 가로놓여있을 수 있다. 즉 일본인 연구자들이 문학주의(미학적 규범)에 충실하면 할수록 이 텍스트에 내재하는 정치적 맥락

6) 주5)와 같음.

7) 吉本隆明, 앞의 책, 147쪽

8) 대표적인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나쓰메는 중국인과 조선인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았을 뿐이지, 하나로 얽힌 민족적 주제로 보지 않았다"(요네다 도시야키米田利昭)

"나쓰메는 군국주의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중략) 당시의 나쓰메에게 있어서는 정치보다는 인간이 무거운 과제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라 마사토 荒正人)

"나쓰메는 영웅의 길, 순교의 길을 택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생활인의 길을 택했다. 즉 나쓰메는 천하국가의 사람이 아니라 생활인이었던 것이다." (고마샤쿠 기미駒尺 喜美)

"나쓰메 정도의 천재적 능력에 비취 당연한 일이지만, 만주 한국의 풍물을 실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미야이 이치로 宮井一郎)

으로부터 비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나쓰메의 아시아인식을 둘러싼 공방이 대부분 ‘표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나쓰메 비평가들이 제기하는 ‘짱코로(チャン)’나 ‘로스케(露助)’같은 멸칭, 혹은 중국인, 조선인을 묘사함에 있어 사용된 ‘더럽다’ ‘냄새 난다’ ‘시끄럽다’와 같은 형용사에 내재하는 차별적 인식에 대해, 옹호론자들은 문제의 표현들을 ‘작품’ 및 ‘문체’의 맥락에서 독해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나쓰메를 보호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구축해 왔다. 예컨대, 문제가 되는 표현들이 나쓰메의 초기 작품에서도 익히 볼 수 있는 ‘해학적 수법’⁹⁾의 연장이라는 논조는 소극적 변호에 속한다. 아울러, 이러한 해학의 문체야말로 만철총재의 빈객이었던 나쓰메가 만철이 주도하는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의 질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중략) 자기자신을 포함해서 현실을 골격화한”¹⁰⁾ 것이라는 주장은 적극적인 옹호로 분류된다.¹¹⁾

이상에서 보아온 것처럼, ‘표현’을 중심으로 한 논의의 틀은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을 예정할 따름이며, 따라서 나쓰메 소세키의 아시아인식과 관련된 논

9)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활달한 해학적 문체를 기조로 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중략) ‘짱코로’라고 쓴 부분은 극히 드물고, 그나마 그 앞뒤에 해학적 문체가 두드러진 곳에서만 보일 뿐이다”(相馬庸郎「漱石の紀行—」『滿韓とところどころ』論『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1968.2)

10) 伊豆利彦「『滿韓とところどころ』について 上一漱石におけるアジアの問題」『横浜私立大学論叢人文科学』1981.3

11) 이 외에도 근대일본인들의 여행 기록에 나타난 중국 인식을 고찰한 조슈아 포겔은 나쓰메가 여행기를 통해 중국 인민의 강인한 삶의 자세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논란의 대상이 된 ‘짱코로’와 같은 멸칭 용례는 나쓰메 특유의 ‘빈정거림(sarcasm)’의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만한 여기저기』의 서두에 소개한 “너도 바보로구나”라는 나카무라 체코가 나쓰메에게 한 발언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Joshua A. Fogel, *The Literature of Travel in the Japanese Rediscovery of China 1862-194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252-54). 그러나 이 견해는 나쓰메의 ‘빈정거림’의 대상들, 즉 만철 총재 나카무라 체코, 아사히신문기자이자 저명한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와 익명의 중국인 육체노동자들 사이의 인종적, 위계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무의식의 산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3쪽에 걸친 관련 기술에서 『만한 여기저기』를 직접 읽은 형적은 찾아볼 수 없다. 포겔의 논고는 다케우치 미노루 등 일본인 연구자들의 논고를 재인용, 심지어는 재재인용하면서 외부로부터 ‘나쓰메 신화’의 추인 대열에 합류하는, 지적 태만 형 일본연구의 전형을 보여준다.

의의 심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쓰메의 한국, 만주 여행에 관한 연구가 양적 확대 속에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빈곤함을 노정한 요인 역시 ‘표현’에 집착해 온 연구 관행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쓰메가 남긴 아시아 관련 표현은 양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당대나 후대에 예견되는 비난을 감당 할만한 애매모호함의 단단한 각질로 싸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쓰메의 아시아 언설에는 비판론자뿐만 아니라 옹호론자에게도 고루 입론의 논거가 될 수 있는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표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연구가 갖는 사말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나쓰메의 여행 행위와 그에 부수하는 정치적 문맥을 부각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즉, 문명의 정당성을 환기하는 여행 행위는 곧 지배 권력을 욕망하는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의 지리적 실천에 다름 아니라는 시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지배와 통치 기제에서 언어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의도는 없다. 다만, 제국과 식민지를 규정하는 통치구조와 권력 질서의 맥락 속에서 여행 행위와 언어 행위를 고찰하는 것에서 보다 의미 있는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을 뿐이다.

III. 만주, 한국여행과 ‘제국’의 지리적 실천

메이지유신 직전인 1867년에 태어나 메이지시대가 종언을 고한 4년 후에 사망한 나쓰메 소세키는 메이지시대와 더불어 생애의 거의 전부를 보냈다. 실제로 그는 에세이에서 “유신 혁명과 동시에 태어난 내 입장에서 보면 메이지의 역사는 즉 나의 역사이다”¹²⁾라고 말한 바 있다. 1912년 메이지천황의 사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쓰메는 소설 『마음』에 ‘메이지 정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스스로의 삶과 함께 걸어온 시대를 애도했다¹³⁾. 메이지시대를

12) 「維新の革命と同時に生れた余から見ると、明治の歴史は即ち余の歴史である」(「マードック先生の日本歴史」)

13) “그러다가 여름 무더위가 한창일 때 메이지천황께서 붕어하셨습니다. 그 때 나는 메이지의 정신이 천황에서 시작해서 천황으로 끝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이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들이 그 시점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필시 시대착오적

‘자유와 독립과 자아로 가득 찬 현대’¹⁴⁾로 규정한 ‘선생’의 유서는 곧 작가인 나쓰메의 시대인식의 투영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일본을 패전으로 이끈 군국주의 노선을 비판하면서도 메이지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나 시바 료타로死馬遼太郎역시 나쓰메의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장편소설 『산시로三四郎』(1908) 중에 나오는 “일본은 망할 걸세” 라는 히로타 선생의 발언은 익히 알려져 있다. 또한 만주, 한국여행 직전에 발표한 『그 후それから』(1909)에는

일본은 서양에서 빛이라도 얻지 않는다면 도저히 꾸러나갈 수가 없는 나라야. 그러면서도 선진국이라고 자처하고 있지. 그러고는 어떻게든 선진국 대열에 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 모든 방면에 걸쳐서 깊이보다는 넓이를 확장해 선진국처럼 벌려놓은 거야. 무리하게 벌려놓았기 때문에 더욱 비참한 거야. 소와 경쟁을 하는 개구리처럼 이제 곧 배가 터지고 말 거야. (중략)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가고 있어. 일본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밝게 빛나고 있는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지 않은가? 온통 암흑이야.¹⁵⁾

라는 표현이 나오거니와, 이는 러일전쟁의 승리에 들뜬 일본사회에 대한 나쓰메의 냉소적 시각, 국가주의를 결연하게 거부하는 양심적 지식인 나쓰메의 모습을 각인시킨 발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 평가가 타당하다고 할 경우, 이로부터 6년 후 나쓰메의 필치를 통해 봉건적 군신관계의 재현, 즉 ‘메이지 일본’에 대한 충군애국의 감정이 표출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すると夏の暑い盛りに明治天皇が崩御になりました。其時私は明治の精神が天皇に始まって天皇に終わったやうな気がしました。最も強く明治の影響を受けた私どもが、其時に生き残ってみるのは必寛時勢遅れだといふ感じが烈しく私の胸を打ちました。)

14) 夏目漱石 『こころ』, 『漱石全集』9, 岩波書店, 1994. 41쪽. 추후 『漱石全集』으로 부터의 인용은 『전집』으로만 표기한다.

15) 나쓰메 소세키, 『그 후』, 윤상인 옮김, 민음사, 2003, 103-04쪽.

할까? 이러한 낙차를 초래한 직접, 간접적 요인으로 1909년 만주, 한국 여행을 상징하고자 한다.¹⁶⁾

메이지시대에 접어들어 일본은 청일, 러일 전쟁의 승리를 통해 전통적인 화이질서를 타파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정치적 패권국가로 등장했다. 대만에 이어, 만주와 조선까지도 세력권에 편입했다.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둔 후, 대륙진출의 교두보로서 조선에서는 한국통감부가, 만주에서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약칭은 ‘만철’)를 설립했다. 만철의 초대 총재였던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는 ‘과학적 식민정책’의 신봉자답게 본국의 엘리트들을 불러들여 만철을 ‘일본제국의 싱크탱크’¹⁷⁾로 만들었다. 고토가 본국으로 귀환하자, 나카무라 제코(中村是公)가 만철 2대 총재로 부임했다. 그는 대학예비문 시절 나쓰메 소세키와 하숙에서 함께 기거한 절친한 사이였다.

『만한 여기저기』의 서두에서 나쓰메는 만주, 한국 여행이 만철총재 나카무라 제코의 초대로 실현되었음을 밝혔다¹⁸⁾. 만철총재 나카무라가 어떤 의도에서 나쓰메를 초대했는지, 위병으로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던 나쓰메는 왜 그의 초대에 응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나쓰메가 만주, 한국을 여행한 1909년은 러일전쟁의 승리에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이 대륙 팽창전략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던 시기이다. 대만에 이어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 요동반도의 조차권을 획득하고 대한제국의 보호국이 된 일본은 조선과 만주의 광대한 영토를 대륙 팽창의 전초기지로 삼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렇지만 세력권의 획득이 곧 제국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16) 뿐만 아니라 나쓰메가 만주, 한국여행 이후에 발표한 소설에는 만주나 조선에 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정치적 인식도 개입되지 않은 자명하고 무표정한 ‘외지’로 그려질 뿐이다.

17) 고바야시 히데오『만철』, 임성모 옮김(산치림, 2004)

18) "남만철도회사라는 곳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지 하고 정색해서 물으니 만철 총재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네는 못 말리는 바보로군, 하고 말한다. 제코에게 바보라는 말을 들어도 무덤덤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제코는 웃으면서 어딘가 이번엔 한번 데려가줄까, 하고 제안했다. (중략) 건성 기가 섞인 한 내 대답을 들은 총재는 해외에서 일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지. 자네처럼 아무 것도 모르면서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주변에 폐만 되니까 말아야, 라고 썩 지당한 말을 한다."(『漱石全集』12, 227쪽)

것은 아니다. 제국의 판도에 편입된 새 영토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군인과 관리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중주국 민간인들의 이주가 필수적이었다. 만철 초대 총재였던 고토 신페이는 1908년 6월 “시간이 경과하면서 민중들이 옮겨오면 만주는 사실상 제국의 영토가 된다. 후일 반환할 경우에도 우리의 이익은 확고부동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¹⁹⁾는 발언을 통해, 이민이야말로 제국의 판도를 완성하는 필수 조건으로 규정했다. 당시의 외상이었던 고무라 주타로는 1909년 2월2일, 의회에서 ‘만한 이민 집중론’을 표명했다. 즉, 이민을 만주, 한국에 집중하여 제국의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²⁰⁾ 대규모의 인적 이동을 위한 교통망도 정비되었다. 1906년, 오사카-대련 정기항로가 개설되었다. 일본 체신성의 명령항로로 지정되어 4척의 선박이 매주 2회 운항했다.²¹⁾

나쓰메가 만주, 한국 여행에 오른 1909년 9월은 이러한 이민 독려 캠페인이 지속되던 시기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반관반민 형태의 대규모 단체 견학, 수학여행, 관광이 실시된 것은 1906년부터이다. 그 구체적 양상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신문사가 기획한 민간인 단체관광이고, 다른 하나는 문무성과 육군성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생 수학여행이었다.²²⁾ 아사히신문이 요코하마-고베 간의 정기연락선인 로세타호(ロゼッタ丸)를 임대한 대규모 ‘만한 순유선’이라는 이름의 대륙시찰단을 모집한 것은 1906년 7월이었다.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375명의 시찰단이 1906년 7월25일부터 8월23일

19) 田川真理子「滿州移民事業の理念と現実〈前篇〉」『言葉と文化』第4号, 2003에서 재인용.

20) “러일전쟁의 결과, 제국의 지위는 일반하여 그 경영에 임해야할 지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무의미하게 떠나면 외국 땅으로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을 피해 되도록 이 지역에 이민을 집중하여, 그 일치통합된 힘으로 경영을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주)19와 같음.

21) ‘일만연락선’으로 취역한 4척의 선명은 大義丸, 大仁丸, 開城丸, 鉄嶺丸로, 1,500-2,000톤 정도의 규모였다. 배 이름으로 ‘개성’과 ‘철령’이라는 ‘신영토’ 조선과 만주의 도시명을 채택한 것에서 신포도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여 내지인의 이동과 이주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엿보인다.

22) 임성모「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근대 일본의 만주 여행과 제국의식」『일본역사연구』제23집, 2006.6

까지 30일간 부산-인천-경성-평양-대련-영구-무순-봉천-요양-여순의 여정을 소화했다.²³⁾ 같은 해 7월에는 문부성과 육군성이 주관한 만주수학여행에는 일본의 각급 학교 교직원 및 남학생 3,694명이 참여했다. 당시의 만주, 한국 수학여행은 제국의 세력범위를 인식하게 하는 '실물교육'의 일환이었다.²⁴⁾ 나쓰메가 만주, 한국 여행길에 오른 다음날인 1909년 9월 3일에도 시모쓰케(下野)신문사가 도치기 현의 실업가 34명을 모집하여 실시한 '만한관광단'이 출발했다.²⁵⁾

만철의 초청을 받은 나쓰메 소세키는 9월2일 도쿄를 떠나 9월3일 고베(神戸)항에서 데쓰레이호(鉄嶺丸)에 승선해서 9월6일 저녁에 대련(大連)항에 도착, 여순, 웅악성, 영구, 당강자, 봉천, 무순, 하얼빈, 장춘을 주유한 후 압록강을 건너 9월 28일 평양에 도착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경성에 머물면서 인천과 개성을 둘러본 후 부산을 거쳐 10월 14일 시모노세키(下関)에 도착, 철로를 이용해서 10월 17일 도쿄(東京)에 귀경했다. 이 46일간의 여행은 그에게 있어서 1900년 9월 8일부터 1903년 1월 24일까지 약 2년 반 정도의 영국유학 여행 이후 두 번째 해외여행이었다.

나쓰메는 만주,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사히(朝日)신문에 『만한 이곳 저곳滿韓どころどころ』(1909.10.21-12.30)이라는 제목의 여행기를 연재했다. 그러나 이 여행기는 분명치 않은 이유로²⁶⁾ 무순까지 쓴 시점에서 중단된다. 즉, 두 번째 행선지인 조선에 관해서는 공개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은

23) 로세타호에 승선한 익명의 아사히신문 기자는 1906년10월2일에 쓴 기념사진집 서문에서 만주, 한국 단체여행의 목적이 일본의 신 영토를 방문하고, 러일전쟁의 격전지 순례였음을 밝혔다. “올해 7월, 아사히신문사가 기선 로세타마루를 개장(改装)하여 만주, 한국 땅에 파견하고자, 만한 시찰에 뜻이 있는 탐승객을 모집하니 예정인원 375명이 순식간에 모인 즉, 항해 30일 동안 파도가 잔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빠짐없이 우리나라의 새 영토, 새 전장(戰場)을 찾게 한지라.”(朝日新聞写真班『ろせった丸滿韓巡遊記念写真帖』東京朝日新聞会社, 1906.10)

24) 高媛「戦勝が生み出した観光一日露戦争翌年における満州修学旅行」『Journal of Global Media Studies』第7号. 2010.9

25) 李良姫「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總督府の観光政策」『北東アジア研究』第13号. 2007.3

26) "아직 쓸 것은 남았지만 연말이 되었으므로 일단 붓을 멈추겠다"(漱石全集12, 351쪽)

것이다.²⁷⁾ 따라서 그의 조선여행과 관련된 행적이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인식 등은 일기와 편지 등 사적인 기록과 여행 후 신문에 게재된 인터뷰 혹은 투고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그가 여행 후 2회에 걸쳐 『만주일일신보』에 게재한 「한만소감韓滿所感」(1909.11.9.-10)이 2013년 1월 초에 평론가 구로카와 소黒川創에 의해 발굴, 공개됨으로써 나쓰메의 자기/타자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 역시 새롭게 발굴된 자료의 수혜 속에 놓인다.

IV. 해외여행과 주체화

구마모토의 제5고등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를 하던 나쓰메가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유학 길에 오른 것은 1900년 9월, 그의 나이 만 34세 때였다. 그는 요코하마에서 독일선적의 프로이센호에 승선한 후 영국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및 영국체재 기간 중에 걸쳐 비교적 상세한 기록(일기, 서간, 견문기 등)을 남겼다.

10월18일(목) Naples에 상륙해서 cathedrals를 두 곳, museum 및 Arcade Royal Palace를 구경하다. 사원은 매우 장엄하고 훌륭하다. 박물관에는 유명한 대리석 조각이 무수히 진열되어 있다. 또한 Pompeii의 발굴물이 엄청나게 많다. Royal Palace도 무척 아름답다. 도로에는 모두 돌이 깔려 있다. 이곳은 서양에 와서 처음으로 상륙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놀랐다. (전집19,23쪽)

오랜 항해 끝에 나폴리에 도착한 나쓰메는 일기에 서양문명에 처음 접한 느낌을 꾸밈없이 표출하고 있다. 이 짧은 기록에 점재하는 ‘장엄하다’ ‘훌륭하다’ ‘엄청나다’ ‘아름답다’ ‘놀랍다’와 같은 형용사는 육로로 제노바(Genoa)와 파리를 거쳐 도버해협을 건너 런던에 다다르기까지의 기록에도 어김없이

27) 단, 이 여행기에는 조선인에 관한 기술이 단 한 번 등장한다. 개성에서 조선인이 인력거를 거칠게 몰았다는 기술이 그것이다.

등장한다. 이는 그의 유럽여행이 상당한 진폭을 수반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정체성의 재정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시아 인종과 문화에 대한 우월감의 피력과 서양인에 의한 홍콩, 상해, 콜롬보의 문명화된 도시풍경에 대한 찬탄이 교차하는 나쓰메의 도영(渡英)일기에서 제국주의 혹은 서양우월주의에 대한 저항이나 반성적 성찰을 찾아보는 것은 거의 무리에 가깝다. 오히려 여행 중에 만나는 사회 주변부의 아시아인을 타자화함으로써 스스로를 문명화된 보편적 규범의 틀 안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지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중심화 욕망은 스스로가 주변적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부정적 자기인식의 보상에 다름 아니다.

요코하마를 출항한 후 돌아보니 오른쪽도 왼쪽도 우리들 일행을 제외하고는 온통 서양인들 투성이다. (전집19, 15쪽)

누구에게서나 내 영어가 썩 좋다는 칭찬을 받고 얼굴이 붉어지다. (동, 21쪽)

자기정체성의 재정의는 프로이센 호에 승선한 후 자신이 함께 유학길에 오른 하가 야이치(芳賀矢一)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서양인 등 다른 인종들에 둘러싸인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재정의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주체의 수동화(여성화)로 나타난다. 영어를 잘 한다는 “칭찬을 받고 얼굴이 붉어지다”는 기술은 그 상징적인 예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의의 핵심 동인은 그가 서양이라는 타자와 대면하게 된 이후 스스로가 ‘보여지는’ 존재로서 순치(馴致)되어갔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열차에 오른 나쓰메는 “서양인들 무리에 끼어드니 모두 신기한 듯 내 얼굴을 바라보”는 낯선 경험을 일기에 적었다. 런던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점의 일기에 나오는 “길거리의 맞은편에서 키가 작은 기묘하게 생긴 녀석이 걸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이었다” (동, 44쪽)는 구절은 ‘아름다운’ 서양인들에 둘러싸인 추한 동양인으로서의 자조적인 자기인식을 드러내주는 것임과 동시에, ‘보여지는’ 존재로서의 그의 서양체험이 서양 중심 권력구조의 내재화 과정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나쓰메의 열등감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은 용모의 미추가 아닌 서양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근대문명의 시차 혹은 거리감에 대한 자각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쓰메는 서양의 보편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하고 저항하는 길을 택했다²⁸⁾.

런던에서 지낸 2년은 가장 불쾌한 2년이였다. 나는 영국신사들 사이에 서 늑대 무리에 낀 한 마리 삽살개처럼 가련한 처지였다. 런던 인구는 500만 명이라고 한다. 이 500만 방울의 기름 속에서 한 방울 물이 되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단언한다.

귀국 후 3년 반 역시 불쾌한 3년 반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일본의 신민이다. 불쾌하다고 해서 일본을 떠나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일본 신민으로서의 영광과 권리를 누리려는 나는 5,000만명 속에서 살아가며 적어도 5,000만분의 1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이 영광과 권리를 5,000만분의 1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존재를 부정하고 혹은 나라를 떠날 수는 없는 노릇, 오히려 힘닿는 한 이것을 5,000만분의 1로 회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중략) 나의 의지 위의 의지는 내게 명하기를, 일본신민으로서의 영광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 어떤 불쾌함도 피하지 말라고 한다. (『문학론』1907, 서문)

후일 나쓰메가 주창하는 ‘자기분위’ 사상의 맹아라 할 수 있는 이 신조 고백에서 주목할 점은 서양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근대를 내재화하려고 한 것과 집단적 주체(‘일본신민’)에 대한 자각이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나쓰메가 유학을 떠난 1900년은 제국주의의 전성기였다. 영국은 그 중심에 있었다. 나쓰메는 대영제국의 심장 런던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은 제국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기도 했다. 비록 나쓰메가 탄 배는 독일 선적이었지만, 발착지 요코하마에서 유럽의 관문 이태리 나폴리에 이르기까지 기착한 상하이-홍콩-싱가포르-콜롬보-페낭-아덴-수에즈-포트사이드는 모두 영국의 지배하에 놓였던 도시였다.²⁹⁾ 나쓰메의 여행 일기(이른바 ‘도영일기’)에는,

28) “나는 하숙방에 칩거했다. 모든 문학서적을 고리짝 속에 던져 넣었다. 문학서적을 통해 문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문학론』서문)

‘Queen’s Road’ ‘Victoria Peak’와 같은 홍콩의 지명, ‘British India Hotel’과 같은 콜롬보의 호텔명이 등장하지만, 이러한 고유명사가 환기하는 영국 제국주의의 정치 현실에 대해 그는 끝내 무감각하다. 일본의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장한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적 시각은 도영 유학생 나쓰메 소세키에게 충실하게 계승되고 있었다.

가까스로 서양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피한 메이지 시대 일본 지식인 나쓰메에게 일반적 맥락에서의 패배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메이지유신 이후 30여 년 간의 근대화 과정에서 균질하게 이식(내면화)된 인종적·문화적 우열인식은 나쓰메가 근대적 주체를 상상할 때 마다 숙명처럼 마주쳐야 할 주술과도 같은 것이었다. 여행 과정에서 아시아, 혹은 아시아인을 바라보는 나쓰메의 시선은 시종 ‘부감(俯瞰)’의 각도를 유지했고, 아시아를 묘사하는 글 속에서 그는 반사적으로 아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내고자 했다.

한 소녀가 돈은 필요 없으니 제발 이 꽃을 받으라고 애걸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드니 당장 태도를 바꿔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망국의 백성은 하등(下等)한 존재이다.(『일기』1900.10.1 『전집』19, 20쪽)

인도와 함께 영국의 식민지였던 스리랑카의 불교 사원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을 나쓰메는 이렇게 일기에 적었다. 나쓰메와 함께 여행을 했던 하가 야이치, 나쓰메보다 반년 먼저 같은 항로로 프랑스 출장 길에 올랐던 화가 구로다 세이키 등의 여행일기에도 콜롬보에서 현지인들의 집요한 강매와 구걸 행위에 접했다는 기술이 나온다. 그러나 나쓰메는 일기의 ‘망국’ ‘하등한 존재’와 같은 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콜롬보의 가난한 소녀는 비천한 인종적 타자로 규정되고, 스리랑카의 식민지(‘망국’)현실은 외세의 폭력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하등’의 국민성이 자초한 것이라는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적 인식에 갇혀 있다. 그 점에서 나쓰메는 1862년 막부 파견 건구사절단의 일원으로 싱가포르에 기착한 바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아시아 인식과 동일선상에 있다

29) 상하이에는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아편전쟁의 승리 이후 난징조약을 맺어 1843년 영국이 서양국가로서는 최초로 상해를 조계지로 삼았다.

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십 수년 전 몇 번인가 외국을 여행하여 구미제국에 체류했을 당시, 걸핏하면 현지 사람들의 대우가 소홀한 것에 불쾌함을 느꼈던 적이 많았다.

유럽을 떠나 배를 타고 인도양에 이르렀다.

영국 사람들이 해안을 관할하는 곳에 상륙했는데, 지나 외의 지역에서 권력과 위세를 부리면서 토인(현지인·역자 주)을 통치하는 그 상황은 방약무인이어서 동등한 인류로 대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당시 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혼자서 생각한 것은 인도지나의 인민이 이렇게 영국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영국인이 위세와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척 통쾌한 일일 터, 한쪽을 가없이 여김과 동시에 다른 한쪽을 부러워하니, 나도 일본인이다. 언젠가 한번은 일본의 국위를 떨쳐서 인도지나의 토인들을 통치함에 있어 영국인을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영국인도 고통스럽게 해서 동양의 통치권을 우리 손아귀에 넣어야 한다고 혈기왕성한 청년시절에 남몰래 마음 속 깊이 약속한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³⁰⁾

애써 19세기 서양인들에 의한 비서구세계에 관한 언설 체계에서 유통되었던 ‘비천한 야만인’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기착지 콜롬보에 관한 위의 인용은 나쓰메의 내부에서 이미 인종적·문화적 계층제(hierarchy)의 인식적 실천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위의 기술에 곧이어 콜롬보의 시가지 풍경, 특히 열대 가로수가 정연하게 늘어선 잘 정비된 도로에 대해 언급하면서 “애당초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러움과 열등감을 담은 토로는 그 이전의 자기우월적 기술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연’한 도로 풍경을 만든 주체는 현지인이 아닌 식민종주국인 서양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점은 향해 도중에 기항한 상해에서 “집들이 굉장해서 요코하마 따위는 비교도 안 된다”는 기술과 ‘시끄럽기 그지없는 지나인’³¹⁾이라는 일견 상충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발언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30) 「동양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東洋の政略果して如何せん)」 『時事新報』 1882.12.7.-12. 『福澤諭吉全集』8卷(岩波書店, 1970), 436쪽

31) 나쓰메가 프로이센 호 선상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斷片」에는 다음과 같은

이다).

이로부터 9년 후인 1909년 9월, ‘만한 주유’의 여행길은 나쓰메에게는 두 번째 아시아 체험의 기회였다.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아시아 체험와의 두 번째 만남은 그에게 무엇이었는가?

V. 제국의 자각

만한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쓰메는 제자 데라다 도라히코寺田寅彦에게 보낸 편지(1909.11.28.)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9월1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만주와 조선을 주유하고 10월 17일에 간신히 돌아왔네. 급성 위염으로 말일세. 떠날 때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견뎌낼 생각으로 떠났기 때문에 여행 도중에 고생을 했네. 그 대신, 가는 곳 마다 지인들이 있어서 여행 내내 편하게 귀족적으로 거들먹거리면서 다녀왔다네.³²⁾

이 편지에서 나쓰메는 위염 탓에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만주, 한국 여행을 ‘아리스토클라チック(aristocratic)’라는 표현으로 총괄했다. 즉 ‘귀족’ 대우를 받으며 여행을 했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은『나는 고양이로소이다』나 『도련님』과 같은 소설에서 익히 보아온 해학적 과장 표현의 연장으로 이해할

영문 메모가 보인다. “나는 상하이로 갔고, 홍콩, 싱가포르, 콜롬보, 아덴을 봤다. 나폴리, 제노바, 피라, 런던은 아직 못 봤다. 내가 항해 중에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것은 단연 중국인이다. 중국인들이 육체노동을 하기 위해 배에 승선했을 때 그들은 각자 하나가 아니라 50개의 목소리를 가진 듯 했다. 이것은 나를 전적으로 짜증나게 했다. I have seen Shanghai, I have seen Hongkong, I have seen Singapore, Colombo and Aden. I am yet to see Naples, Genoa, Paris and London. Of all the peoples I have come across during the voyage, the Chinese are by far the noisiest of all. Each of them has fifty voices instead of one, when they come to the ship to do their work as coolies. This utterly stupefies me.”(『전집』19, 35쪽)

32) 『전집』 23쪽

수도 있다. 그러나 친구인 만철총재의 초청으로 여행길에 오른 아사히신문사 기자이자 유명작가 나쓰메는 9년 전, 4인 1실의 비좁은 2등 선실에서 40여일 간의 항해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귀족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당시, 나쓰메는 구마모토에서 만난 적이 있는 영국인 여성 노트의 초대를 받아 영국인 등 온통 서양인들뿐인 1등 선실의 무도회장을 처음 방문하고는 ‘고생 천만’³³⁾이었다고 일기에 적은 바 있다.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국제사회에 그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백인들이 주도하는 ‘열강 클럽’으로부터는 소원한 존재임을 나쓰메는 프로이센호 선상에서 깨달았을 터이다. 그로부터 9년 후, 나쓰메의 두 번째 여행은 모든 면에서 조건을 달리하고 있었다.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 선적의 대형여객선 최상등급 선실을 홀로 이용하여 대일본제국의 관할 하에 들어온 대륙의 광대한 지역을 ‘시찰’ 혹은 ‘순유’하는 ‘총재의 빈객’이 되어 있었다. 만철이 만주 주요 도시에 운영하던 순수 서양식의 야마토호텔에 묵으면서 만철총재의 전용 마차로 이동하기도 했다. 테쓰레이호의 선상에서도, 대련의 파티장이나 사교클럽에서도 미국, 영국 국적의 서양인들이 ‘당연한’ 듯 나쓰메의 주위에 입회했다.

한 달 반 동안의 만주, 한국 여행 내내, 나쓰메가 이동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수행원이 동행했다. 통역과 길 안내를 하기 위해 만철 소속의 직원들이 나쓰메를 수행했고, 조선에 들어서서는 조선통감부와 철도국 등에서 사람을 보내 그를 수행케 했다. 나쓰메의 일기에 의하면, 9월28일 만주 국경의 안동현을 출발하여 평양에 도착, 조선 주유에 나선 이후 10월 13일 부산에서 배로 귀국에 오르기까지 16일 동안 그의 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평양에서 10명, 경성에서 31명, 부산(초량)에서 2명 등 총 43명이거나, 이들은 모두가 일본인이었다(나쓰메의 일기나 서간 등 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발표한 여행기 『만한 여기저기』에도 중국인이나 조선인의 고유명사는 등장하지 않는다³⁴⁾). 그의 일기에 등장하는 일본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면면을 모두

33) 흥해로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강한 열기를 느끼다. 이날 밤 일등실에서 무도회가 열렸다. 고생 천만이었다. cabin에 돌아가 침상에 누웠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더웠다.(『전집』 19, 23쪽)

34) 이는 그가 중국이나 조선민족을 인격을 갖춘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얼굴 없는 무기질적

살펴 볼 여유는 없기에 그 중 일부만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평양에서는 나카무라 제철소장관, 시라카와 평양일보사 사주, 경성에서는 스키 시즈카 탁지부 사세국장, 야마가타 이소오 서울프레스 사장, 구마모토 한키치 학무국 과장, 기쿠치 다케이치 농상공부 상공국장, 오카자키 엔코 일한가스주식회사 전무이사 등이었다. 정치, 경제, 언론 등의 분야에서 신 판도의 식민지화에 매진하던 제국의 엘리트들이었다. 즉, 나쓰메의 여행은 대일본제국의 에이전트들의 후원과 보살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가 남긴 여행 기록 속에서 고유명사를 수반하는 인물들은 일본인과 서양인에 국한되어 있다. 즉 ‘제국’의 권력 자장 속에 있는 인종만이 인격(고유명사)을 부여받고 있는 구도이며, 나쓰메의 여행 기록에 등장하는 ‘현지 사람(=원주민)’들은 익명화의 부감 시선 속에 피사된 불특정다수의 타자였다. 나쓰메가 메이지시대에 대한 국민적 애도를 대변한 소설 『마음』을 집필하면서, 동아시아의 신흥제국의 발호와 함께 ‘자유와 독립과 자아’를 영치 당한 중국, 한국의 민중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흔적은 그가 남긴 어떠한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여행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일본인이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넉넉치 않은 형편임에도 나름대로 무한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른 경영자의 기개입니다. 만주, 한국을 유람해보니 과연 일본인은 믿음직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땃땃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인이나 조선인을 보면 참으로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중략)

또 한 가지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그곳에서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열심히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기가 거둔 성공에 대해 모두 만족하며 설명해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

인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강상중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에서 동양사학자 시라토리 고키치(白鳥庫吉)의 지역과 관련된 고유명사에 담긴 제국주의적 욕망에 대해 "시라토리가 ‘만주’나 ‘만선’이라고 말할 경우 그 심상지리 속에 ‘도성의 위치, 전시의 해군의 경로, 교통로, 영역’ 등의 지명 고증은 있으나 거기에는 살아있는 구체적인 민족이나 주민은 존재하지 않았다"(133쪽)고 비판했거니와, 이러한 비판은 나쓰메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 보았습니다만 비판하거나 질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만한의 문명』『朝日新聞』1909.10.18, 『전집』25, 368쪽)

경성에 가면 아침부터 이웃에서 요곡(謠曲) 선생이 요곡을 가르치는가 하면 건너편에서는 샤미센 선생이 연습을 시키는 형편이니 내지와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산에 가면 완전히 내지와 같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조선에서의 일본의 개화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자연히 남부에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 간 것이며, 만주의 개화는 통 큰 재력가가 과감히 주위 사정에 개의치 않고 인공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화를 이식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겠지요. (동상. 『전집』25, 369쪽)

만주, 한국 여행 직후 나쓰메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여행소감을 피력했다. 즉 나쓰메는 ‘내지’의 일본국민을 상대로 식민지 경영에 종사하는 동포들에 대한 경의와 신뢰를 표명함과 아울러 ‘일본의 개화’, 즉 일본식 개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환기하고 있다. 이 언설을 두고 초청자 나카무라 제코에 대한 배려 차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고자 하는 옹호론은 그들이 공유하는 나쓰메의 신성성에 대한 신앙 외에는 그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나쓰메가 위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행한 발언이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음은 이로부터 18일 후인 1909년 11월 5, 6일자 『만주일일신문 滿州日日新聞』에 기고한 「韓滿所感」(상·하)의 논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만한체류 중에는 곳곳에서 분에 넘치는 후의를 입으면서 가는 곳마다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견문했다. (중략) 만한을 다녀와서 맨 먼저 갖게 된 낙관적 인식은 재외 일본인들이 모두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韓滿所感(上)』)

이번 시찰 여행에서 또 하나 느낀 것은 내가 다행스럽게도 일본인으로 태어났다는 자각을 얻은 점이다. 내지에서 아등바등 움츠리고 지낼 때는 일본인만큼 불쌍한 국민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짓눌려있었지만, 만주에서 조선에 걸쳐 우리 동포들이 각 분야의 문명사업

에서 활약하여 당당한 우월자(優越者)의 위치를 차지한 상황을 목격하고 일본인은 매우 믿음직한 인종이라는 인식이 뇌리에 새겨졌다.

동시에 나는 지나인이나 조선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을 눈앞에 두고 승자의 기백으로 맡은 일에 매진하는 우리 동포는 진정한 운명의 총아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성에 있는 어떤 지인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도쿄나 요코하마에서는 서양인에게 브로큰 잉글리시로 말하는 것이 창피했는데, 여기에 와보니 웬걸 브로큰이든 뭐든 술술 입 밖으로 나오니 희한한 일이지 뭐가.” 만만에 있는 동포제군의 심리는 이 한 마디로 대충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韓滿所感(下)」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론의 개략』에서 ‘문명’ 개념이란 상대적인 것이라고 갈파했다. 문명의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의 이행을 역사의 진보라고 여겼고, 이러한 사상적 토대에서 ‘탈아입구’ 이데올로기가 생성되었다. 나쓰메는 위 기고문에서 만주,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이주민들에게 ‘문명’의 역군이라는 대의명분을 부여한다. 서양 제국주의가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위선적 프로파간다를 앞세운 것을 상기하면, 나쓰메의 만주, 한국에 관한 언설역시 전형적인 제국주의 담론의 문법을 답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나쓰메는 후쿠자와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관점에서 일본문명을 새롭게 자리매김한다. 즉 그가 ‘아시아’라는 비교항을 얻었을 때 오랜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서양문명에 대한 열패의식으로 벗어날 계기가 함께 찾아온 것이다. 위 기고문의 문중에 나오는 ‘우월자’ ‘승자’ ‘총아’와 같은 표현은 그것이 발화자의 가감없는 ‘순진한’ 의식의 발로라 할지언정, 메이지시대 지식인 나쓰메 소세키의 내외인식의 부정할 수 없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1909년 가을, 만주와 한국을 주유한 나쓰메는 어떤 여행자이었는가? 여행 후 그는 두 번에 걸친 신문 기고를 통해, 내지와 외지의 일본인들에게 ‘아시아’라는 비교항을 통해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재정의(긍정적 자기상의 도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여행 도중, 나쓰메의 시선은 시차의 감각 혹은 문명 단계론의 인식에 지배되었으며, 나아가 자민족중심주의에 기초한 ‘문명’의 시각을 아시아에 투사함으로써 식민지경영을 합리화했다. 온전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나쓰메 소세키를 제국주의자로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행이라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재현(여행기록 등) 행위를 통해 나쓰메가 제국의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번성한 여행기(주로, 비서양세계에 대한)가 독자들에게 보급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안락의자 제국주의(armchair imperialism)와 같은 정치적 효과로 귀결되었던 바와 같이, 나쓰메의 만주, 한국 여행담 역시 제국을 환기하는 언설장치로서 기능했다.

나쓰메에게 있어 일본의 신 판도를 주유하는 여정은 신생제국으로서의 ‘신(新) 일본’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나쓰메가 만주, 한국 여행을 계기로 체득한 일본을 둘러싼 내외 인식은 이후의 창작 세계에 흔들림 없이 투영되었다.

만주 특히 대련은 무척 좋은 곳입니다. 당신과 같은 유망한 청년이 발전할 곳을 당분간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눈 딱 감고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와서 만철 쪽에도 아는 사람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정말 올 생각이 있다면 뒤를 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피안 지나기까지』1912)

❖ 참고 문헌

-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경덕 외 옮김. 이산, 1997.
고바야시 히데오, 『만철』, 임성모 옮김. 산치림, 2004.
임성모,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근대 일본의 만주 여행과 제국의식』, 『일본역사연구』 제23집, 2006.6.
福澤諭吉, 『福澤諭吉全集』 8卷, 岩波書店, 1970.
三好行雄編, 『夏目漱石事典』, 学燈社, 1990.
江藤淳, 『漱石とその時代第4部』, 新潮社, 1996.
夏目漱石, 『漱石全集』, 岩波書店, 1993-1999.
吉本隆明, 『漱石の巨大な旅』, 日本放送出版協会, 2004.

FOGEL, Joshua, *The Literature of Travel in the Japanese Rediscovery of China 1862-194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伊豆利彦, 「満韓ところどころ」について 上—漱石におけるアジアの問題」, 『横浜私立大学論叢人文科学』, 1981.3.

田川真理子, 「満州移民事業の理念と現実〈前篇〉」, 『言葉と文化』第4号, 2003.

李良姫,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総督府の観光政策」, 『北東アジア研究』第13号, 2007.3.

高媛, 「戦勝が生み出した観光—日露戦争翌年における満州修学旅行」, 『Journal of Global Media Studies』第7号, 2010.9.

❖ ABSTRACT

The Road to Empire: Journeys to Europe and Far Eastern Asia by Natsume Soseki

YOON, Sang-In

Is this a right way in politics that attitude of Japanese scholars to separate Natsume Soseki from the expansionism of pre-war Japan to protect ‘sanctity’? Nowadays, most Japanese scholars are regarded to share the desire that minimize the memory of the behavior of Japanese Imperialism in East Asia, such as Korea, China, etc. Furthermore, ‘the desire to minimize’ inescapably concluded in avoidance, concealment, at last the temptation of deliberate misleading.

Until now, the controversy about the Natsume Soseki’s travel to Korea and Manchuria has repeated in defence and criticism surrounding the self-awareness and recognition of others of Natsume Soseki, making the expression in a record of Natsume’s travel as the subject of study, for example, the degrading expression about Chosun people and scorn for Chinese and Russian.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at Natsume’s travel is the political practice which is combined with the desire for the empire, focusing on the political context in the action of journey of Natsume and its contents other than the expression itself.

Key Words

나쓰메 소세키, 만주한국여행, 만한 여기저기, 제국의 시선, 동원을 위한 글쓰기, 여행기와 안락의자 제국주의

Natsume Soseki, Journey to Manchuria and Korea, *Mankan tokoro dokoro*, Imperial Eyes, propaganda writings, travelogue and armchair imperialism

논문접수일: 2013. 11. 10

심사완료일: 2013. 12. 06

게재확정일: 2013. 12. 12